'명품택지' 土公이 물 흐린다

수완신도시 건축규제 대폭 완화 … 광주시도 '맞장구'

건축선 후퇴·주차장 축소 등 원래 계획 크게 벗어나

광주 수완지구를 명품신도시로 개발하겠다던 한국토지공사가 당초의 건축 규제 등을 완화해주도록 광주시에 요청, 신도시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광주시도 원래 계획에 어긋나는 토공의 요구를 받아들여 무원칙한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국토지공사는 최근 광주시 수완택지개발산업지구의 실시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신청서를 냈다. 수완지구 내 상업·업무시설용지를 비롯, 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 및 준주거용지·문화시설용지 등에 적용되는 건축 가이드라인을 바꿔달라는 것이 골자다.

예컨대 도로 변 건물을 건축할 때 건축선보다 일정 거리까지 후퇴시키도록 한 규정을 완화하거나 법정 주차대수 기준 등을 축소해달라는 식이다.

건축선은 건축물의 벽이나 담이 넘어오지 않도록 정한 도로 외곽의 경계선. 특히 수완지구의 경우 도심 경관 개선 및 보행권 확보 등을 위해 도로 변 건물을 건축할 때 건축선보다 최고 3m까지 후퇴시키도록 했는데, 토지공사는 광주시에 이 규정을 변경해달라고 했다.

또 여유있는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 상업·업무시설용지와 근린생활시설 및 준주거용지 내 전면공지(前面空地·건물과 보도 사이의 공간)에 주차장을 설치 할 수 없도록 한 규정도 고쳐달라고 했다.

이같은 변경안은 토공이 마련한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을 전면 수정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수도권의 대표적 신도시인 일산·분당을 능가하는, 이른바 '명품'택지를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꼴이다.

토공이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기존의 가이드라인을 바꾸려는 이유는 기존 계획에 따라 일부 토지에 건물을 지을 경우 토공이 제시한 용적률 등을 맞추기기 힘들다는 민원이 제기되면서다. 10억원이 넘는 토지매매 대금 반환소송 등 민사 소송을 비롯, 토지교환 요구 등도 제기됐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토공이 이미 분양 계약을 체결한 일부 토지 소유자들의 요구를 수용, 다른 용도의 토지로 교환해 주거나 계약을 해지해주는 것도 이 때문으로 꼽고 있다.

특히 수완지구의 경우 지난 2006년부터 분양을 시작했지만 지난 2월부터 토지 사용이 가능했던 만큼 향후 건축 과정에서 민원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토지공사측은 이와 관련, "지난 2004년 수완지구내 용적률·건폐율 등을 적용할 지구단위계획을 마련할 때 심도있는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것 같고, 민원도 일부 제기되자 이를 감안해 보완키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토공 스스로 충분한 검토 없이 139만평에 달하는 도시 공간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한편, 광주시는 "당초 약속했던 명품 주거단지 조성 계획을 훼손시키는 내용이 많아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재산권 침해 등 민원이 제기되는 점을 감안, 전면 공지내 주차장 설치를 허용하고 투시형벽면 설치 규정을 완화하는 수준에서 승인했다"고 밝혔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현대·기아 SUV '최우수'

美 자동차컨설팅사 소비자 만족도 조사

쏘렌토·베라크루즈 '최우수 SUV' 선정

현대·기아차의 SUV가 다시 한번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현대·기아차는 지난달 29일 미국 자동차 전문컨설팅회사인 오토퍼시픽사가 발표한 '2008 소비자 만족도 조사'에서 쏘렌토<아래 사진>가 '최우수 중형 SUV'로, 베라크루즈가 '최우수 대형 SUV'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기아차의 쏘렌토는 지난 3월 미국의 유력 자동차 구매 가이드인 '카북 2008년판'이 선정한 차급별 '최우수 추천모델'에서 중형 SUV 부문에서 2년 연속 선정되며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지난 2006년 말, 미국 고속도로안전교통국의 SUV 충돌테스트에서도 쏘렌토는 정면충돌시 운전자 및 동승자의 안전도, 측면 충돌시 앞·뒷좌석의 안전도 측정에서 4개 부문 모두 안전도 만점인 별 다섯(★★★★★)을 획득한 바 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기아차 '로체 이노베이션'

오늘부터 사전계약 받습니다

기아차는 2일부터 11일까지 전국 영업지점을 통해 로체 이노베이션 사전계약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로체 이노베이션은 12일 출시 예정으로 최첨단 신기술과 피터 슈라이어 디자인 총괄 부사장의 '슈라이어 라인'이 적용된 디자인 등으로 출시 전부터 화제를 모으고 있다.

기아차는 11일까지 사전계약 고객에게 차량 출고시 계약금 10만원을 지원한다. 기아차는 사전계약과 더불어 로체 이노베이션 출시 기념으로 6월 한달간 로체 이노베이션 트리플7 이벤트(택시 제외)를 실시한다.

기아차는 우선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로체 이노베이션 출고 고객을 대상으로 엔진 등 동력전달기기의 보증기간을 국내 중형차 최초로 기존 5년 10만km에서 7년 15만km로 대폭 연장한다. 또 6월 한달간 로체 이노베이션 출고고객에게 7.0% 특별금리(36개월 기준)를 제공하고 정상금리 8.25% 선택시에는 20만원 유류비를 지원한다.

7월까지 로체 이노베이션 출고 고객을 대상으로는 매회 7명씩(동반 1인) 7회 추첨을 통해 총 49쌍에게 제주도 왕복 항공권과 숙박권을 제공한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병어 싸게 팝니다"

서구 매월동 수협공판장

광주시 서구 매월동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내 수협광주공판장(장장 박동수)이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12일까지 병어 특판행사를 갖고 있다.

이번 행사는 유류가 상승과 어획고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을 돕고, 산지 직출하를 통한 유통마진을 최소화해 소비자 가격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병어는 전남 신안군 비금·임자도 인근에서 주로 잡히는데, 살이 연하고 지방이 적어 담백한 맛이 일품이다. 특히 비린내가 없어 횟감으로도 안성맞춤이며 구이·조림·찜·찌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리해 먹을 수 있다.

박동수 공판장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소비자들이 20·30·40마리 단위로 싱싱한 병어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혔다"면서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문의(062)655~9777.

/이종태기자jtlee@

소상공인 정책자금 1,200억 조기 지원

중기청 오늘부터

중소기업청은 하반기에 집행할 계획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1천200억원을 2일부터 앞당겨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중기청이 운용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최대 5천만원까지를 연 5.47%(변동금리)로, 거치 1년, 5년 이내 상환을 조건으로 대출해 주는 자금이다.

중기청은 아울러 올해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예산을 애초 2천400억원에서 480억원을 추가로 조성해 하반기에 집행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학사농장 '유기농 축제'

학사농장의 유기농 이벤트에 참가한 시민들이 한우고기를 시식하고 있다. 유기농산물 생산·유통업체인 학사농장은 1일 광주시 상무지구 학사농장 유기농 타운에서 '62day 한마당' 행사를 가졌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LPG 가격 인상

kg당 140원 정도 올라

액화석유가스(LPG) 가격이 지난 1일부터 인상됐다.

LPG는 프로판가스와 부탄가스로 나뉜다. 이 중에서 프로판가스는 가정과 식당에서 취사와 난방용으로, 부탄가스는 택시 등의 운송용 연료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런 LPG의 쓰임새를 감안할 때 휘발유와 경유가격의 폭등으로 힘들어하는 자영업자와 서민의 고통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달 31일 가스업계에 따르면 LPG를 수입해 국내 공급하는 SK가스는 프로판가스의 가격을 지난 1일부터 kg당 140원 정도(12.6%) 오른 1천253원 가량으로, 부탄가스는 137원 가량(9.2%) 인상된 1천618원에 충전소에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또 다른 수입업체인 EI도 프로판가스는 kg 138원 가량(12.4%) 인상한 1천251원에, 부탄가스는 134원 정도(9.1%) 올린 1천616원에 시중 유통하기로 확정했다. /연합뉴스

광주 아스콘 평균 단가 전국 최고

t당 5만860원 … 지난해보다 23% 올라

올해 광주지역 아스콘 평균 계약단가가 t당 5만860원으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지난해 4만1천350원에서 23.0%(9천510원) 올라 전국 평균 19.5%(8천30원)를 크게 웃돌았다.

이에 따라 아스콘 가격 인상범위를 둘러싸고 첨예한 이견을 보였던 조달청 등 정부기관과 아스콘 업체간의 갈등이 해소됐으며, 아스콘 공급차질로 인한 건설공사 현장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조달청에 따르면 전국 각 공공기관에 공급할 아스콘 1천650만7천t(8천81억원)에 대해 지역별로 추진된 연간 단가계약의 체결을 완료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올해 계약단가는 주 재료인 아스팔트·골재류 등의 원자재 가격인상을 반영해 전년도 계약단가(1t당) 대비 평균 19.5% 인상됐다.

지역별 t당 계약단가(괄호안은 수량)를 보면 광주 9천510원(217만4천t), 강원 8천820원(101만3천t), 전북 8천680원(134만t), 서울 8천240원(239만t) 등 순이었고 대전이 5천670원(152만3천t)으로 가장 낮았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휘발유·경유 평균 가격

ℓ당 1,900원 돌파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와 경유의 평균가격이 ℓ당 1천900원을 돌파했다.

1일 한국석유공사의 주유소 종합정보시스템인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전국 주유소의 경유 평균가는 ℓ당 1천908.62원, 휘발유 평균가는 1천900.78원을 각각 기록했다.

휘발유 가격은 전날에 비해 ℓ당 3.80원 오른 반면 경유 가격은 5.00원이 오르면서 경유는 휘발유 가격을 추월한 이후 이틀만에 평균 가격 차이도 7.84원으로 벌렸다. /연합뉴스